

보도자료	배포일시	2013.3.14.(목) 08:00	보도시점	배포 직후 (총 3매)
	담당자	예보센터장 반기성	전화번호	02-360-2200(대) 02-360-2244
"Total Weather Service Provider" ::: 케이웨더(주)				

3월에도 기온 변화 심해

- 3월 초까지 널뛰기식 기온특성 보여
- 하순 초반 강한 꽃샘추위

■ 2013년 1월 ~ 3월 상순의 기온 특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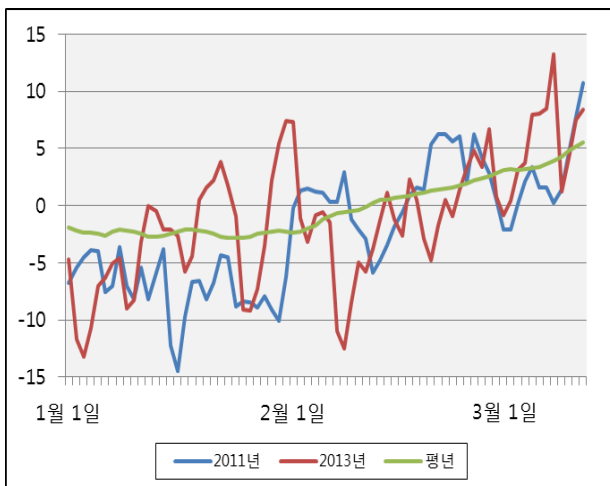
- 올해 1월부터 3월 상순까지 우리나라는 극심한 한기와 난기의 영향을 번갈아 받으면서 널뛰기식 기온분포를 보였음.
- 1월 상순에는 강하게 발달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추운 날이 많았음. 특히, 1월 3일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16.4℃까지 내려가면서, 27년 만에 1월 상순 최저기온 극값을 기록하는 등 극심한 추위가 있었음.
- 1월 하순에는 몽골 부근에 상층 기압능이 자주 형성되어 찬 대륙고기압이 약화되는 가운데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기온이 큰 폭으로 상승해 2월 상순 초반까지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음. 특히, 1월 31일 서울의 최고기온이 영상 11.5℃를 기록하였고, 동두천, 문산, 원주, 인천에서는 1월 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하였음.
- 2월 상순 후반부터는 강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2월 하순 전반까지 추운 날이 많았음. 특히, 2월 8일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15.8℃를 기록하는 등 한파가 기승을 부렸음.
- 2월 하순 후반부터 3월 상순까지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였음. 특히, 3월 9일에는 남고북저의 기압배치에서 강한 남서류가 유입되면서, 서울의 최고기온이 영상 23.8도까지 오르며 3월 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하였음.

■ 남은 3월 기온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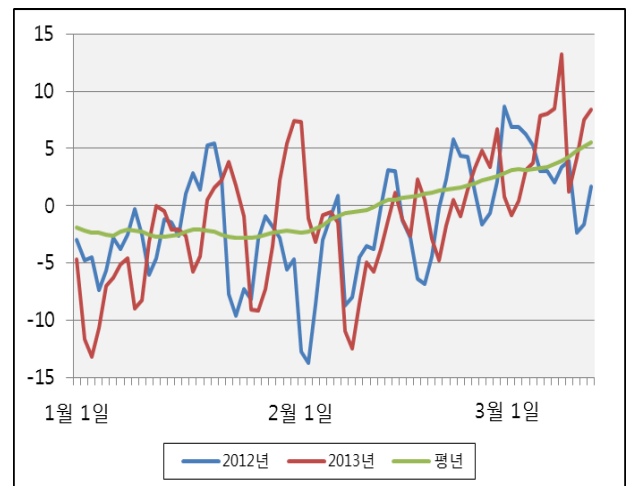
- 남은 3월에도 변덕스러운 날씨 변화가 이어지겠고, 기온의 변동 폭이 심하겠음.
- 3월 중순까지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날이 많아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포근하겠음.
- 3월 하순 초반은 찬 대륙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면서 강한 꽃샘추위가 있겠고, 후반부터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다시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음.

[참고자료 1. 평균기온 비교]

기간 : 1월 1일 ~ 3월 13일 (서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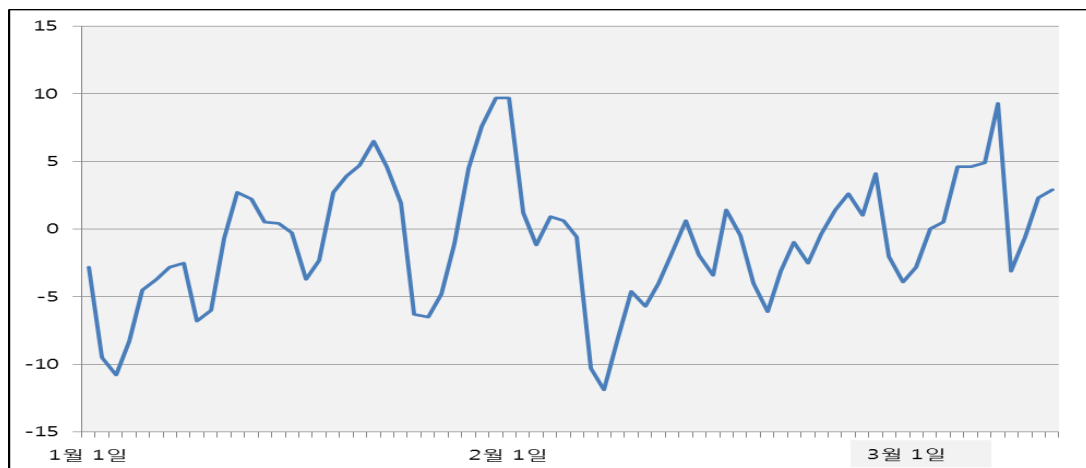


[2011년과 2013년과의 기온 분포 비교]



[2012년과 2013년과의 기온 분포 비교]

[참고자료 2. 평년(1981~2010) 평균기온과의 편차]



[0을 기준으로 + 값 기온 높음, - 값 기온 낮음]

*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우리나라는 한기와 난기의 유입을 번갈아 받아 널뛰기식 기온특성을 보였음.

[참고자료 3. 지난 주말 서울지역 기온변화 및 해외 극심했던 일교차 사례]

- 지난 토요일(9일)은 따뜻한 남서풍과 일사로 인해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23.8℃ (아침 최저기온 6.2℃)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7.6℃를 기록하였고, 다음날(10일)은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아침 최저기온 영하 1.5℃까지 떨어져 하루만에 25.3℃의 매우 큰 기온 변화를 보였음.

- 1810년 1월 19일 미국 New Hampshire주의 Portsmouth 지역에서 5℃의 온화한 기온을 보이다 한랭전선 통과 후 영하 25℃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몇 시간 만에 30℃의 기온이 하강하였음.

- 1911년 1월 10일 미국 South Dakota주의 Rapid City지역에서 15분 동안 26℃의 급격한 기온 하강이 있었고, 1943년 1월 22일 2분 동안 27℃의 급격한 기온 상승이 있었음.

- 미국 Montana주의 Browning지역에서는 1916년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24시간 동안 6.7℃에서 영하 48.8℃로 무려 55.5℃로 기온이 급격히 하강하였음.